



Read the full book on: 10.1787/eag-2015-en

2015 년도 교육부문 개요 OECD 지표

국어 개요

노동시장과 삶에서 값어치 있는 교육...

평균적으로 대졸 성인의 80%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반면에, 고졸 또는 고졸 후 직업훈련을 받은 성인의 70% 이상, 고졸 미만 성인의 60% 이하만이 고용되어 있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은 평균적으로 최종 학력이 고졸인 성인에 비해서 약 60% 가량 소득이 높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교육과 기술·역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성인의 고용률과 소득은 상승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교육의 수요증이나 학위증을 근로자의 일차적 기술·역량 증거로 간주한다.

분명 이러한 이점을 염두에 두고 OECD 국가의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추구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성인기술·역량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의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및 그 하위자치단체에서 평균적으로 부모가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25-34 세(학생이 아닌 성인만 대상)의 22%(한국의 경우에 동일한 집단에서 47%)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제 1 세대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과 부모 및 자신도 역시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은 모두가 비슷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분야의 학문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 중에서 처음 대학을 다닌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학사 학위과정의 진학률이 석사나 박사 학위과정의 진학률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를 가진 성인이 학사학위만을 가진 성인에 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보다 많은 기회(또한 보다 높은 소득)를 가지고 있다. 학사학위나 이에 상당하는 학위를 가진 고용된 성인은 고졸학력의 고용된 성인에 비해서 약 60% 이상 소득이 높지만, 석박사 학위나 이에 상당하는 학위를 가진 성인은 고졸학력의 성인에 비해 2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혜택은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고등교육 학력을 가진 성인은 우량한 건강 수준, 자선 활동의 참여,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세계에 더욱 많이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속되는 불평등

학력에서 성별 격차는 좁혀지고(또는 역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같은 특정 분야의 교육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저학력의 청년 성인들에 비해 대학졸업 청년 사이에서 고용의 성별 격차는 많이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에 비해 고용될 확률은 낮다.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해당 성인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이나 고졸 후 직업훈련을 받은 성인에 비해서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이 상위 25%의 고소득(월별 소득)을 받는 그룹이 포함될 가능성이 23 퍼센트 포인트 더 높다.

많은 OECD 국가에서 2010 년에서 2012 년 사이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하락

교육부문은 2008 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뒤늦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 년에서 2012 년 사이에 GDP 는 글로벌 경기둔화 이후에 상승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국가의 1/3 이상에서 하락했다.

또한 2008 년의 경제위기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 직후의 수년 동안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완만한 경기회복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다. 2008 년에서 2013 년 사이에 교사의 실질 임금이 상승한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약 1/2 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이는 교사와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피고용인 사이의 현격한 임금 격차를 좁히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OECD 전체 평균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는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전임 피고용자의 1 년 임금에 대비하여 78%에 불과하며,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임금은 비교 대상의 다른 피고용자 임금에 대비하여 각각 80%, 8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쟁력이 낮은 임금은 교사 직종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유인하는 것이 크게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공적자금 지원의 삭감은 교사의 전문계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국제학생역량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따르면, 학교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OECD 2013 년도 「수업·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전문계발은 수업을 위한 ICT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타 내용

- 2012 년에 OECD 국가들은 GDP 의 평균 5.3%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기관에 지출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 중에서 11 개 국가가 GDP 의 6% 이상을 지출했다.
- 교육은 대부분 공적자금으로 지원되지만, 대학기관은 민간재원에서 자금을 충당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 2000 년에서 2012 년 사이에 대학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평균적인 비중은 2000 년의 69%에서 2012 년 64%로 감소했다.
- 조기 아동교육은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특히 유익하다.
- 「국제학생역량평가 프로그램」(PISA)에 참여한 모든 국가 및 경제권역에서 디지털 및 인쇄물에 대한 독해력에서 성별 격차가 줄어들었다. 여자 아이의 디지털 독해력은 평균 26 스코어 포인트, 인쇄물 독해력에서는 평균 38 스코어 포인트(1 개 학년의 차이에 해당) 차이로 남자 아이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고등학교 또는 고졸 후 직업훈련을 받은 성인의 약 77%가 고용되어 있었다. 이는 일반고등학교를 최종학력으로 하는 성인에 비해서 7 퍼센트 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 20-24 세에서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
- 정보통신기술과 문제해결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고용된 성인의 약 57%가 직장에서 지원하는 공식 및/또는 비공식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약 9%만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학급의 크기가 클 수록 수업과 학습에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급의 관리를 위한 시간이 늘어난다. 평균 크기의 학급에 1 명의 학생이 추가되는 경우에 수업 및 학습의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은 0.5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다.
- OECD 국가 전체에 있어서 교사인력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3 년 중고등학교 교사의 36%가 50 세 이상이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가진 국가들에서 이러한 50 세 이상의 교사 비율은 2005 년에서 2013 년 사이에 평균 3% 증가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doi: 10.1787/eag-2015-en